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놓는

성인교정치료

“간단한 교정치료는 풍치와 같은 치주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심미적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



한누리치과병원 이철우 원장

〈약력〉

서울대 치의학 박사
 을지대학교병원장, 임플란트센터소장
 서울치대 임상외래교수
 대한치과 이식학회 공보이사
 미국 치주·임플란트학회
 active member
 스위스 바젤치과대학 교환교수
 대한치과병원협회 수련위원

배열된 치아와 밝은 미소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나 오복의 하나로 꼽히는 치아의 건강이 그저 복으로 저절로 굴러 들어오길 바란다면 이를 얻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

전신적인 건강관리와 마찬가지로 치아건강 역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만 최적의 상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치열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었거나 전방으로 도출(빠드렁니)되었거나 아래턱 앞으로 나오거나(주걱턱)등을 부정교합이라 한다.

이러한 부정교합은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손상된 치아나 안모의 심미적 문제와 관련된 사회심리적 문제, 부적절한 교합으로 인한 기능상 문제,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치주질환(풍치)과, 우식증(충치)의 증가 및 과도한 도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치아의 외상 등이다.

따라서 부정교합을 가능한 빨리 치료해 주는 것이 좋으며, 최적시기는 성장중인 어린시거나 청소년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부정교합에 대한 지식 결여 및 경제적 이유, 사회적 이 유 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장년이 된 후, 스스로 판단과 경제력이 생긴 후, 이러한 부정교합의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최근 성인 교정 치료가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70년대에는 5% 미만이었던 성인환자의 비중이 90년대에는 2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성인 교정환자 증가는 맥락을 같이 하는데, 치아가 상실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인접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놓는

성인교정치료

치가 쓰러진 경우에 있어 반대쪽 치아도 상실된 공간으로 내려오게(올라가게)되어 부분적으로 부정교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과거와 같이 단순히 이빠진 공간에 이를 해주는 스타일의 치료로서는 저작기능, 심미적인 면에서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치아를 똑바로 세워주는 간단한 교정치료를 동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렇게 배열을 제대로 잡아줌으로 치아관리가 쉽게 되어 풍치와 같은 치주 질환도 예방될 수 있으며, 심미적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교정장치도 치료효과와 심미성,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는 추세인데 크기를 더욱 줄인다거나 치아 색과 같은 투명한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축으로 장치를 붙일 수도 있어 전문의와 상의하여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막연하게나마 교정치료라면 어린이나 받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나이에 무슨 씩스럽게...”, “생긴대로 살면 되지...” 하고 저만치 미루어 놓는다면 질 높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필자의 환자들 경우 40~50대의 성인교정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위와 같은 생각으로 주저하다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용기를 내어 교정치료를 받은 후 매우 만족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며, 이렇게까지 완벽한 치과치료를 추천한 데에 대해 매우 고마워한다.

문의처 : 한누리치과 02-753-1925 

